



# [ 협회소식 ]

## ■ Welcome New Members

● 신규회원이 되셨음을 축하드립니다.

업체명	대표이사	전화번호	주소	회원 종류 통상 회원
장연물류산업(주)	임호식	041)356-5791	충남 당진군 면천면 문봉리 186-40	

## ◆ ISO/TC51 아시아 위원회 개최 아시아 6개국 초청 3일간 열려



지난 2007년 12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마포 가든호텔 회의실에서 아시아 최초로 ISO/TC51 아시아 위원회를 구성하여 첫 회의가 개최되었다.

ISO/TC51 아시아 위원회는 한국이 그 축이 되어 일본,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총 7개국의 ISO/TC51 대표 또는 자국 산업 표준 정부관리가 참가하여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 위원회는 「아시아 미래 물류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하여 산업자원부가 후원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여 향후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파렛트·컨테이너 분야를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가 수행하게 되어 본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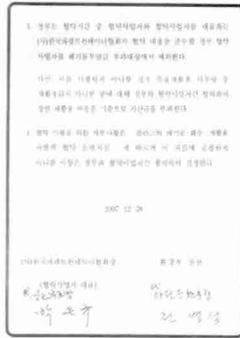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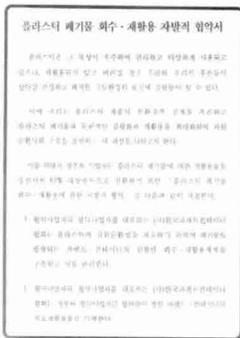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된 배경을 보면 ISO 표준규격을 최종규격으로 채택되기까지는 기술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TC위원회에서의 회원국간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수렴할 수 있는 협상력이 매우 중요하다.

TC51 기술위원회는 25개국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P'회원국 가운데 유럽국가 17개국, 북미 3개국, 그리고 아시아 국가 5개국(한국, 일본, 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유럽의 발언권과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며 영국과 미국이 연합하여 대항하는 양대 구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ISO/TC51 아시아 위원회를 개최하여 아시아 국가들간의 기술협력 등을 하여 기술력을 확보하며 아시아 국가간의 협조체제를 통하여 TC51에서의 파렛트관련 국제표준규격 제·개정에서 발언권을 강화하는 전략을 구축하는데 의미가 있다.

위원회 회의 3일째 되는 마지막 날 12월 7일은 아시아 7개국 간의 상호 양해각서(MOU)를 작성하여 아시아 국가간의 상호이해와 협력을 다져나가기로 합의하였다.

## ◆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체결 2007년 12월 28일 환경부와 협약 조인식 가져



지난 2007년 12월 28일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는 환경부와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체결 조인식을 가졌다.

플라스틱은 그 특성이 우수하여 편리하고 다양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으나, 재활용되지 않고 버려질 경우 환경파괴의 주범이 되어 그 문제가 심각하게 야기되고 있다.

이에 플라스틱 제품의 친환경적 설계를 촉진하고 플라스틱 폐기물의 원천적인 감량화와 재활용을 최대화하여 자원순환사회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며, 또한 파렛트 및 컨테이너 생산업계의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6년부터 추진

하여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와 환경부 양자간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 하였다.

본 협약서의 체결로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의 파렛트 및 컨테이너 생산회원사들은 플라스틱 폐기물 비용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 ◆ 2007년 한국물류혁신컨퍼런스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박은규 부회장 표준화·기타분야 발표



지난 2007년 11월 13일부터 15일 3일간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07한국물류혁신컨퍼런스가 열렸다.

(사)물류협회의 주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국내 유수의 제조업, 유통업, 물류업의 물류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개최된 컨퍼런스이다.

컨퍼런스 3일째 되는 11월 15일은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박은규 상근부회장은 표준화·기타 분야에서 강의를 맞아 20여명의 각계 정부 부처 및 대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여년간의 파렛트와 관련지어진 물류분야의 전반적 흐름과 아시아 통합 물류시스템의 개념 및 기대효과, 향후 추진활동 전략 등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 ◆ 상자형 파렛트 및 롤 상자형 파렛트 표준화 회의 각 업계의 생산자 및 사용자 함께 모여

지난 2007년 11월 30일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회의실에서는 상자형 파렛트와 롤 상자형의 ISO 국제표준 제안과 관련하여 국내 사용자와 공급자간의 사전 업계의견

교환 회의를 가졌다.

현재 평 파렛트는 국내에서는 40%(T-11형)일정 수준으로 표준 파렛트가 보급되어 사용중이며, 아시아 국가에서도 표준 파렛트 보급과 함께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허나 상자형 파렛트와 롤 상자형 파렛트는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각 업체마다 사용환경과 목적에 따라 각기 다른 규격의 상자형 파렛트 및 롤 롤 상자형 파렛트를 사용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상자형 파렛트와 롤 상자형 파렛트의 전반적 생산실태와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단일 표준화 규격을 모색하고자 생산자측의 (주)코리아코프, (주)골드라인이 사용자측은 (주)신세계 이마트, 롯데마트, 대한통운 택배사업부 등이 참여 하여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상자형 파렛트와 롤 상자형 파렛트의 단일 표준화에 대한 각 업체간의 의견과 현 사용실태를 협의 하였다.

## ◆ 목재 파렛트 산업 침체의 원인과 대책 목재분과위원회 한국에서 처음으로 보고서 출간

목재 파렛트 산업 침체의 원인과 대책

Cause and Countermeasure of  
Wood-Pallet Industry Stagnation

연구기관  
서울대학교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목재분과위원회

우리나라의 파렛트 시장은 과거에는 목재 파렛트가 시장을 주도하였으나 국내 석유화학 공업이 발달하여 플라스틱 파렛트 생산 원자재의 공급이 저렴하고 용의하여 졌으며, 반대로 목재 원자재 및 운송비의 상승, 국제식물검역규제, 생산 시설의 자동화 등의 요인으로 많은 부분 플라스틱 파렛트로 대체되었다. 그 결과 목재 파렛트 산업은 현재 침체상태에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협회 내 목재 파렛트 생산 12업체가 뜻을 모아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산하 목재분과위원회를 결성하여 목재 파렛트 산업 침체의 원인과 그 해결책을 찾고자 2006년 11월 20일 날짜로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와 1년간의 연구용역을 체결하였으며, 지난 12월 18일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2층 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가 개최되었다.

‘목재 파렛트 산업 침체의 원인과 대책’ 이라는 연구과제로 이루어진 이번 최종 보고서는 일본 파렛트협회와 미국의 유닛로드 디자인 센터, 그리고 유럽 파렛트 협회 등을 직접 방문하여 선진국의 목재 파렛트 산업 현황을 파악하는 등 국내 뿐 아니라 선진국의 목재 파렛트 산업현황을 직접 탐방하여 국내 목재 파렛트 산업의 침체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한국 최초의 연구 보고서이다.